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내일 연준 발표 관심사는 12월 금리 인상 폭.... 내일은 0.75% 인상
- CNN Business: 미 부채: 연방 이자 비용 규모가 곧 국방비 앞설 수 있어

[미국 금융]

- Bloomberg: JP모건, 연준 내일 완화 입장 보이면 S&P 500 최소 10% 상승

[에너지]

- WSJ: 바이든, 전쟁으로 황재한 오일/가스 업체들에 추가 세금 추진
- WSJ: 미국, 러시아산 오일 가격 상한제 일시 완화책 발표
- CNBC: 미·아랍 에미리트, 1천억불 규모의 청정에너지 투자에 합의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바클레이스 "올해 연준 피벗 기대 말라...12월에도 75bp 인상"
- 연합뉴스: 美 원유 생산량,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가스 생산도 역대 최대
- 한경: 중국 민간기업 경기 전망도 3달 연속 '하강'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재택근무 인기 정점, 고용시장 둔화로 다시 하락할 듯
- NYT: 미 식료품 가격 급등, 과연 인플레 타인가... 기업들 수익도 치솟아
- WSJ: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거래 비중, 처음으로 20% 미만
- WSJ: J&J, 의료 기기 제조업체 Abiomed 인수
- NYT: 디즈니, 독점 신상품 판매 결합한 스트리밍 서비스 시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Fed Meeting to Focus on Interest Rates' Coming Path 내일 연준 발표 관심사는 12월 금리 인상 폭.... 내일은 0.75% 인상

- 월가 분석가들은 내일 수요일 연준 FOMC 모임에서도 금리가 0.75% 오른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 경우 올해 연속 금리를 4차례나 0.75% 올리게 되는 것이다.
- 더 큰 관심사는 내일 FOMC와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12월에 금리 인상 폭은 낮출지 아닐지, 어떤 전망이나 예상을 하는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 일부 연준 관리들은 최근 들어서 내일 FOMC 모임 이후에는 금리 인상 폭을 낮추겠다고 시사하는 발언을 시작했고, 아마도 내년 초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해서 그동안의 연준 조치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의 주시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시장은 하고 있다.

WSJ 기사

CNN Business: US debt: Federal interest payments could soon exceed military spending**미 부채: 연방 이자 비용 규모가 곧 국방비 앞설 수 있어**

- 연준의 금리 인상은 주택 구입자와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미국의 차용 비용이 더 올라가고 있는 셈이다.
- 최근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의 연방 부채 이자 비용이 4천7백50억 달러로 전년도 3천5백20억 달러를 앞질렀다. 교육 예산 지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6천7백70억 달러인 반면에 연방정부의 상이군인 혜택 비용과 교통 부분의 지출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오는 2025년이나 2026년까지 연준 부채 이자 이용이 국방비 예산(2022년 회계연도에 7천6백70억불)을 초과할 수 있다고 Moody's Analytics는 밝혔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JPMorgan Says Dovish Fed Could Spark 10% S&P Rally
JP모건, 연준 내일 완화 입장 보이면 S&P 500 최소 10% 상승**

- 연준의 덜 공격적인 금융 정책에 대한 희망 때문에 지난주 대형 기술 주식의 수익 하락이 다소 회복된 상황에서 JP모건의 거래 데스크는 연준이 내일 수요일 완화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주식 랠리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즉, 내일 금리 인상 폭이 0.5%이고 파월 의장이 높은 물가고와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감내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할 경우 S&P 500은 적어도 10%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 다른 시나리오로 0.5% 인상에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 입장을 보일 경우 S&P 500은 up 4% to 5%.
- 또한 0.75% 인상에 완화적인 기자회견 시에는 S&P 500 up 2.5% to 3%. 반면에 0.75% 인상에 매파적 기자회견 시에는 1%나 하락 또는 0.5% 상승으로 예상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WSJ: Biden Calls for Penalties on Oil-and-Gas Companies' 'Windfall' Profits**바이든, 전쟁으로 횡재한 오일/가스 업체들에 추가 세금 추진**

-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촉구하기를, 전쟁으로 초과 이익을 벌어들인 오일과 천연가스 회사들이 이같은 이익을 에너지 가격 하락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추가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중간 선거를 앞두고 화석 연료 산업체에 대한 비판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 그는 “이들 업체는 전쟁으로 횡재를 했다. 임원과 주주들의 이익을 초월한 사회적인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한 현재 정책 보좌관들이 의회와 이들 업체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 부과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른 법안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이들 기업을 압박했다.
- 이에 대해 American Petroleum Institute는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회사들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벌금이나 관련 세금 인상은 새로운 생산 투자를 좀 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WSJ: U.S. Treasury Issues New Guidance on Russian Oil-Price Cap in Bid to Calm Markets**미국, 러시아산 오일 가격 상한제 일시 완화책 발표**

- 연방 재무부는 러시아산 오일 가격 상한제에 따른 오일 시장을 우려를 일시 진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유예 시책을 발표했다.
- 당초 조치는 오늘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오일이 적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의 기업들에 러시아산 오일 운송에 제재를 취할 예정이었다.
- 그러나 오일 시장은 이 같은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12월에 인도될 예정인 러시아산 오일의 경우 발트해에서 아시아 구매자에게 도달하기까지 45일에서 6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12월 5일 전에 선적되어 내년 1월 19일까지 목적지에서 하역할 경우 가격 상한제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12월 5일 이후 선적된 오일의 경우 상한제 밑으로 판매해야만 서구 국가들의 보험, 파이낸싱, 해양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WSJ 기사

CNBC: U.S. and UAE sign strategic partnership deal to spur \$100 billion

in clean energy investment**미·아랍 에미리트, 1천억불 규모의 청정에너지 투자에 합의**

- 양국은 오는 2035년까지 청정에너지 1백 기가와트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와 파이낸싱, 지원 조치로 1천억 달러를 조달하기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
- 이 같은 합의는 글로벌 규모로 오일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을 적은 상황에서 발생해 주목되고 있다.
- 한편 아랍 에미리트는 주요 오일 수출국이지만 태양력 에너지와 원자력 전력 생산 등 비 화석연료 에너지 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CNBC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바클레이스 "올해 연준 피벗 기대 말라...12월에도 75bp 인상"
- 연합: 美 원유 생산량,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가스 생산도 역대최대
- 한경: 중국 민간기업 경기 전망도 3달 연속 '하강'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Bloomberg: Work-From-Home Trend May Have Peaked, LinkedIn Survey Finds****재택근무 인기 정점, 고용시장 둔화로 다시 하락할 듯**

- LinkedIn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원격 근무의 인기가 정점에 달하면서 고용주들은 재택근무의 생산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월 LinkedIn에 광고된 영국 일자리의 12%가 원격이었으나, 일자리 지원의 20%가 원격 근무를 지원하며 여전히 근로자들의 선호를 얻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사에 따르면 관리자의 80%는 원격 근무 시 팀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느끼며, 85%는 직원들이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걱정한다. 반면 직원의 87%는 원격 근무의 생산성이 괜찮다고 답했다. 직원과 관리자의 요구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영국 노동시장의 실업률은 1974년 이후 최저인 3.5%로 여전히 강세이다. 하지만 지난 9월 영국의 LinkedIn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10% 하락하는 등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고용시장의 권력이 다시 고용주들에게로 돌아가며 원격 근무가 줄어들게 될 수 있다.

Bloomberg 기사

NYT: Food Prices Soar, and So Do Companies' Profits**미 식료품 가격 급등, 과연 인플레이 탓인가... 기업들 수익도 치솟아**

- 최근 수년 동안 식품회사와 식당들은 임금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조금씩 가격을 인상해왔다. 하지만 일부 업체와 식당들이 물가 상승 관련 비용이 충당된 후에도 계속해서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수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제품 가격 상승을 진행한 펩시는 3분기 수익이 20% 이상 증가했다. 코카콜라는 14%, 치폴레는 약 26%가 증가한 기업 수익을 발표했다. 한편 연방 노동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가정에서 먹는 식품의 가격은 13% 상승했고 외식 비용은 8.5% 늘었다.
- 이와 같은 식료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저렴한 브랜드의 식료품으로 점차 발길을 돌리는 경향을 보이며, 고급 식자재를 사지 않고 레스토랑에 가지 않는 등 식료품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NYT 기사

WSJ: Silicon Valley's Share of Startup Deals Drops Below 20% for First Time**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거래 비중, 처음으로 20% 미만**

-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스타트업의 수도로 불리며 미국 스타트업 거래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거래 비중이 3분기 미 전역에서 20% 아래로 떨어지면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에 대한 지배력이 줄어들고 있다.
- 이는 원격 거래의 증가, 실리콘 밸리의 높은 사업 비용 등으로 인해 실리콘 밸리 외부에 사업 기반을 두는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뛰어난 인재 등 이점도 명확해 실리콘 밸리의 산업이 줄어들기보다는 스타트업 산업이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J&J Agrees to Buy Medical-Device Maker Abiomed**J&J, 의료 기기 제조업체 Abiomed 인수**

- 건강 제품 판매 업체 Johnson & Johnson은 2023년 1분기 말까지 심장 질환 치료 기기 제조업체인 Abiomed를 1백 6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Abiomed는 최근 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로, 지난해 22%의 매출 증가를 보고했다.

- 이 거래는 J&J의 의료기기 사업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최근 타이레놀 (Tylenol), 리스테린(Listerine) 및 기타 소비자 건강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늘리며 의료 기기 부분의 매출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 J&J는 Abiomed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심장 펌프”라고 불리는 심장 보조 기기 “Impella”를 세계 각국에 도입하고 사용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WSJ 기사

NYT: Disney Tries Mixing Streaming With Shopping 디즈니, 독점 신상품 판매 결합한 스트리밍 서비스 시도

- 디즈니는 이번 주 화요일 특정 Disney+ 프로그램과 연관된 신제품 독점 접근을 결합한 서비스의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1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 서비스는 Disney+ 구독자가 스타워즈, 블랙 팬서, 겨울왕국 등의 새로운 캐릭터 상품을 독점적으로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는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성장세가 줄어든 것에 대한 Disney+의 새로운 전략이다. 경기 침체를 앞두고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졌고, 현재 구독자들의 이탈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 Disney+는 이번 캐릭터 상품 결합 판매와 더불어 디즈니월드 호텔 할인 및 디즈니랜드 신규 놀이기구 탑승권 등과 결합한 새로운 스트리밍 상품을 시도할 예정이다.

NYT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4연속 자이언트스텝 예상에... "더 깊은 경기 침체 예상"

FOMC, 1~2일 회의서 4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 예상 전문가들 "더 깊은 경기 침체 예상에도... 속도 조절할 때 아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시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과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아니면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 발언은 1~2일 회의를 통해 FOMC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0.75% 포인트 금리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고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